

광주형일자리 산물 ‘캐스퍼’ 외장 공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자 ‘광주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양산하는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SUV) ‘캐스퍼’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3면

GGM과 현대자동차는 1일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의 새로운 엔트리 SUV 모델 ‘캐스퍼(CASPER)’ 외장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캐스퍼는 실용성과 안전성, 개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급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델이다.

차명 ‘캐스퍼(CASPER)’는 스케이트보드를 뒤집어 착지하는 캐스퍼 기술에서 영감을 받았다.

새로운 차급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존 자동차 시장의 판도와 고정관념을 바꿀 것이라는 현대차의 의지가 담겼다.

캐스퍼는 전장 3,595mm, 휠베이스 2,400mm, 전폭 1,595mm, 전고 1,575mm로 1.0 MPI가 탑재된 기본 모델과 1.0 T-GDI가 탑재된 액티브 모델(티보 모델)로 구성된다. 외관 디자인은 당당함과 견고함을 바탕으로 엔트리 SUV만의 젊고 역동적인 감성을 담았다.

전면부 디자인은 상단에 턴 시그널 램프, 하단에 아이코닉한 원형 LED 주간주행등을 배치한 분리형 레이아웃과 미래지향적인 파라메트릭 패턴 그릴, 넓은 스킵 플레이트로 캐스퍼만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완성했다.

현대차는 이날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를 더한 액티브 모델 이미지도 선보였다.

액티브 모델은 전면부에 원형 인터쿨러 흡입구와 메쉬타입 그릴을 적용해 역동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이날부터 캐스퍼 전용 웹사이트(casper.hyundai.com)를 오픈하고, ‘얼리 버드 예약 알림 신청 이벤트’ 등 캐스퍼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15일부터 본격 양산 ‘SUV 경차’

소비자 취향·라이프 스타일 반영

을 1만2,000대·내년 7만대 생산

정이다.

현대차 디자인담당 이상엽 전무는 “캐스퍼는 젊은 감성을 추구하는 전 세대를 타겟으로 디자인된 차량으로 세대 간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엔트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GM은 올해 말까지 캐스퍼를 1만2,000대 생산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생산량을 연 7만대까지 늘린다. 이로 인해 직접 일자리 1,000개, 간접 일자리 1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GGM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반영, 민선 7기 광주시에서 본격 추진돼 대한민국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서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자리 사업은 동종 업계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는 대신, 완성차 공장을 새로 지어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완성차 업계의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캐스퍼 생산을 통해 광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서미애·황애란 기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디·레볼루션(D·Revolution)’을 주제로 1일 오전 작품 전시장을 공개해 광주비엔날레관 1관 주제관에서 관람객들이 디자인 스튜디오 ‘디뮤지엄(D MUSEUM)’과 ‘완다 바르셀로나(Wanda Barcelona)’의 협업작품 ‘From Color to Eternity’를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김태규 기자

광주시, 대선 공약 20개 선정...미래 먹거리 방점

군공항·달빛철도 등 4대 과제 명시

친환경차·첨단의료·신재생 등 육성

광주시는 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할 8대 분야 20개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임기 내 조기 착공, 초광역 국가 고지기장 연구소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선공약 중점사업은 지난달 17일에 1차 공개한 12대 과제 75개 세부사업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

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선 후보 공약으로서의 적절성을 고려해 압축·조정했다. 시는 대선공약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광주전남연구원과 사전 기획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교수,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구체화했다.

이용선 광주시장은 최근 차담회에서 “대선공약은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며 “갈등과 쟁점이 되는 것은 대선 공약은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공약으로 집약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8대 분야는 ▲광주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지역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구축 ▲미래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 기반 확

대 ▲초지능형 헬스테크시티 인프라 마련 ▲문화수도, 광주 ▲그린뉴딜 도시모델 구현 ▲민주·인권·평화도시로 구분했다.

광주와 인근도시를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로 조성, 친환경차·첨단의료·신재생에너지 등 광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선정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완성과 인근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도 중점사업에 포함시켰다.

시는 이날 발표한 대선공약 20개 중점사업을 각 당과 후보에게 제시하고, 최종 대선 후보의 공약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완도 당목항·영광 향화도항 국가어항 지정 현대화 ‘탄력’

전남도는 완도 당목항, 영광 향화도항이 충남 태안 영목항과 함께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어항은 어획물의 인양, 위판, 출어 준비 및 어선 피난 등을 위한 항구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등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개정된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따라 어선 이용 빈도, 어항 방문객수, 배후인구 규모 등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으로 인정된 전남 2개소를 포함해 전국 3개소를 9월 1일자로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했다.

완도 당목항과 영광 향화도항은 그동안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기반시설이 미비해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불편이 있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모 있는 투자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항 현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완도 당목항은 40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해권 수산 거점이자, 인근 금일도, 평일도를 잇는 해상교통·관광 거점어항으로 개발한다.

영광 향화도항은 4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남해권 대피어항이자, 인근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를 잇는 해상교통·관광 거점어항으로 개발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용현 기자

전라남도, 중앙정부, 한국전력이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2년 3월 개교!

세계적
석학 포함
우수 교수진

국내
최고 수준
장학 혜택

등록금 및
기숙사
전액지원

연구비,
창업비,
생활경비 지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세계 TOP 10 공대를 향한 힘찬 첫걸음! 첫번째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 2021. 9.10.(금) ~ 2021. 9.14.(화) / 100명(학생부종합전형)

정시모집 : 2021.12.30.(목) ~ 2022. 1. 3.(월) / 10명(수능우수자전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센터) T. 061 330 9690~9694 F. 061 333 9626 www.kentech.ac.kr